

## 자료 17. 대외협력처장 명의 공문

세상을 바꾸는 힘을 지닌 대학



# 경원대학교



수신자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장(사무총장)  
(경유)

제 목 총동문회의 모교에 대한 비방 등의 행위 자제 협조 요청

1. 총동문회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 대학은 그동안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난 4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가천의과학대학교와의 통합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총동문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통합과정을 "사이버 밀실통합"이라고 비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온 학교 재정에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심지어는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대학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동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인물을 재학생과 동문, 일반 시민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대학은 총동문회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총동문회장은 즉시 동문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학 비방 문건을 철회하고 여타 유인물을 통한 대학 통합 비방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5. 아울러 추후 대학에 대한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비방이 계속될 경우, 재학생 보호와 대학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경원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수신자

(05/09)

담당  
권병구

팀장  
권병구

처장  
김한정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1500-28 ( 2011.05.9 ) 접수 (2011. . . )

우 461-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 / <http://www.kyungwon.ac.kr>

전화 031.750.5825 전송 031.750.5666 / e-mail: kbk@kyungwon.ac.kr / 공개

자료 18. 통합관련 동문찬성 서  
명의 관한 건 명단요구  
공문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더불어 함께, 스스로 힘으로, 경원사랑의 마음“

461-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번지 경원대학교 아름관 620호 총동문회실  
 전화 : 031-750-5617 / 홈페이지 : [www.kw4u.co.kr](http://www.kw4u.co.kr) / E-mail : [kyungwon4u@hanmail.net](mailto:kyungwon4u@hanmail.net) / 사무총장

문서번호 : 총동문회 11-32

시행일자 : 2011. 5. 11.

경유 :

수신 : 경원대학교 총장

참조 : 대외협력처

접	일자	년	월	일	결 재 · 공 람		
	시간	:					
수	번호						
처리부서							
담당자							

응신기일 : 2011 년 월 일

제목 : 통합 관련 동문찬성 서명의 관한 건

1. 모교인 경원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총동문회 이사회를 거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동문 중 찬성 서명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동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고 있습니다.
3. 통합에 찬성한 동문들 명단을 공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총동문회에서 돈을 받고 통합 및 교명변경에 찬성해줬다는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전파되고 있는데, 총동문회 누구와 합의를 보고, 누구와 논의를 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5. 총동문회의 이사회에서는 학교측과 합의하자는 어떠한 내용도 의결한 적이 없으며 위 두 사안에 대하여 2011년 5월 16일 오후 4시까지 서면 답변 바랍니다. 끝.

제9대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장 조규호

## 자료 19. 장관면담 거절 공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교육과학기술부

수신자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장**  
(경유)

제목 **장관님 면담 신청에 대한 회신**

1. 관련 : 총동문회 11-36(대학 통합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면담 신청 협조에 관한 건, '11.5.25)

2.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 간 통합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귀 단체에서 제출하신 장관님 면담 요청은 장관님 일정상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출하신 내용으로 업무담당자와 면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필요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사무관 최은정 | 사립대학제도과 권결 05/25 | 김대성

행정사무관 **최은정** | 사립대학제도과 **장** | **김대성**

협조자

시행 사립대학제도과-2179 (2011. 05. 25.)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학지원실 사립대학제도과 / www.mest.go.kr  
전화 02-2100-6930 | 전송 02-2100-6909 / choijj@mest.go.kr / 비공개(7)

Me First, 녹색은 생활이다 !

자료 20. 성남시장 및 외부단체  
통합반대 성명서

## 성명서

- 성남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경원대학교 명칭 변경을 반대한다 -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1만 6천여 경원대학교 재학생과 10만 동문 여러분 !  
우리시 38년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온 "경원대학교"는 3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성남시의 대표적인 종합대학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삶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경원대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면서 재학생, 동문의 모교가 사라지는 허탈감은 물론 성남시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매우 양호한 지리적 여건과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 사학 "경원대학교"를 14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입니다.

교명 변경 결정을 학교의 주인인 재학생, 동문, 교수협의회 등 이해 관계자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보직교수 32명으로 구성된 교무위원회의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일방적이고도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경원대학교"의 주인은 대학설립자도 총장도 아닌 재학생과 동문, 교수 그리고 성남시민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는 배움의 현장인 학교에서 지켜지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민주적인 절차나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성급히 추진되는 교명 변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원대학교"는 성남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수도권의 중심 대학으로 성장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시민의 자부심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남시민과 함께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교명 변경에 대하여 재학생, 동문, 교수협의회, 성남시민의 반대의 목소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성남시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경원대학교의 주인은 재학생과 동문, 성남시민이다.
2. 경원대학교는 지난 30년동안 성남과 함께 역사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경원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와 함께 해야 한다.
3. 민주적인 절차가 결여된 일방적인 교명변경에 대해 반대하며 교명 변경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4.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 변경 불승인을 요청한다.

2011. 5. 23

성남시장 이재명



## 성명서

성남문화원은 성남의 전통문화사업 전개와 향토사 발굴 및 향토인물찾기 등 성남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원은 성남시민의 문화사랑방역할을 하여 성남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아울러 성남문화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남의 경원대 역시 성남시민의 교육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성남 시민으로서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문화원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원대학교가 통합과정에서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니 이는 성남 시민의 자부심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32년간 성남에서 성남시민과 함께 있어온 경원대학교가 인천소재의 대학과 통합하면서 인천소재의 대학이름으로 개명한다는 것은 성남의 경원대학교가 없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절차 또한 학생, 동문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행해 졌다는 것은 큰 문제일수 있습니다. 그것은 32년 역사 속에 배출된 동문들의 모교를 뺏는 것이고 동문과 후배들의 소통을 끊는 것입니다. 무리한 개명에 대한 후폭풍은 반드시 올것입니다.

영원히 가슴에 새겨지는 교육자는 스스로 암각을 한다해서 될것이 아닙니다.

총장 자신의 호로 경원대학교를 개명 하는것은 10만 동문과 1만6천명의 학생, 문화를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원은 경원대학교의 개명을 반대 합니다.

성남 문화원장

한춘섭

## << 자료 >>

### - 성남시민단체 성명서

#### 경원대학교명변경관련성남시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

- 2011년 6월 10일 오전 11시 30분 경원대 비전타워 앞에서 "경원대 교명변경 관련 성남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경원대학교는 성남시 대표적인 명문사학으로서 교명변경은 경원대학교 구성원은 물론 성남시민의 의사를 모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은 성남시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취지입니다.
- 순서는 1)취지설명(성남환경운동연합) 2)기자회견문(양희정성남여성연대대표)발표 3)질의응답 4)폐회입니다.

#### 경원대학교 교명 변경에 대한 성남시민사회의 견해

성남시는 지난 70년대 개발독재정권의 서울 미화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강제로 떠 밀려온 철거민들이 이주,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위성도시입니다. 성남시민은 도시가 형성된 시점부터 교육, 문화, 교통, 경제 등 시민들의 삶이 철저히 정부로부터 소외당한 열악한 환경으로, 특히 전국에서 교육의 질이 최저로 평가 받는 교육의 무풍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성남시 소재 경원대학교는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성남시 최초의 종합대학으로서 우리나라 신형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일궈 낸, 성남시민의 자랑스러운 대표적 교육기관입니다.

지금 시기에 경원대학교와 가천대학교가 통합하는 것은 100만 인구의 성남시 성장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교명 변경과 관련하여 표출되고 있는 학내 갈등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소중한 교육자산에 대한 성남 시민사회단체인 성남평화연대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경원대학교 이길여 총장은 대학의 주체인 구성원들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교명 변경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특히 진리와 정의, 평화의 산실인 상아탑에서 비민주적인 절차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처럼 교명 변경은 재학생과 동문에게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명 변경은 경원대학교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하는 것이 대학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 시민사회단체에서 경원대학교 교명변경과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하게 된 배경은 앞서 성남시 형성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경원대학교는 사학이지만 교육의 공공성으로 성남시 교육성장을 일궈온 성남시민의 대표적 교육기관이자 자랑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명 변경은 대학 구성원의 관심을 넘어 성남시민의 관심 사안이기도하기에, 단순히 학교이

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교육의 정체성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길여 총장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성남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교명 변경을 결정하는 민주 총장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2011년 6월 7일

성남청년회, 터사랑청년회, 분당청년회, 성남여성회, 분당여성회,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부,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성남민예총, 민미협성남지부, 예술마당시우터, 풍물굿패우리마당, 늘봄, 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성남지역, 민주노동당성남시위원회, 성남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푸른학교, 행복한성남생협,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성남지부, 성남시재개발세입자협의회

## << 자료 6 >>

- 기사모음

성남투데이 :: <http://www.sntoday.com>

# 성남투데이<sup>□</sup>

## 이재명 성남시장도 경원대 교명변경 반대

이재명 시장, "민주적 절차 결여된 경원대 이름 변경, 교과부에 교명 변경 불승인 요청할 것"

한채훈 [news@sntoday.com](mailto:news@sntoday.com)

경원대학교(총장 이길녀) 교무위원회가 가천의과학대학교와의 통합을 앞두고 '가천대학교'라는 통합교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경원대학교 명칭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